

“개청 30주년 맞아 성장 넘어 성숙한 도시로”

2025 광주 남구 현황·주요 역점사업

#현황

- 인 구 수 20만7597명
- 면 적 60.99㎢
- 행정구역 17개동 449통 2047반
- 직 원 수 1161명

#역점사업

- 공공·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
- 구도심 관광지 개발 등 고부가 산업 육성
-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
- 포용 복지 실현
- 안전도시 남구 구축
- 통일 공감사업 확대



2025 새해설계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민생 안정... 지역경제 회복 나서
경제·산업 육성 통한 동력 확보
구도심 관광·친환경 산업 확충
주민 품격과 삶의 질 향상 실현
“주민역량 결집... 행복남구 구현”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을사년, 남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의 역량과 에너지를 한데 모아 가야 할 것입니다.”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2025년 을사년을 맞아 신년사를 통해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주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민생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올해 남구의 역점 추진 사업으로 공공·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 모두의 평등과 보편적 삶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국가적 내우외환 극복 실마리를 민생 현장과 지역경제 회복에서 찾겠다는 판단이다.

특히 새해 경제성장률 1%대 전망과 수출 하락세, 내수 부진 장기화 등은 지역경제에 파장을 몰고 올 악재로 여기고, 이에 응하는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및 청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 이런 우려와 염려를 희망의 불씨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청장은 “공공분야 고용 확대와 민간 일자리를 연계한 다달이 취업센터 운영 등으로 모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 골목형 상점이 육성과 군분로와 스트리트푸드존 토요 야시장 확대 등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정책으로 민생경제의 막힌 혈관까지 열리게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되면 골목상권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민생 안정화에 대한 김 청장의 의지는 구도심 관광지 개발과 친환경 자동차 산업 등 고부가 가치 중심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 대목에서도 엿보인다.

백운광장 일대가 남구의 변화·발전을 선도하는 활력 공간으로 탈바꿈 중인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단 하나뿐인 사적동 시간우체국과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을 구도심 관광지로 연결해 골목없는 산업의 기틀을 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백운광장 경제 활성화의 주축인 대형 공영주차장 및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건립 본격화와 함께 문화콘텐츠 거점으로 거듭난 송암산단은 미래 차 애프터마켓 산업까지 추가로 더해지면서 신성장 동

력 산업 2가지를 확충한 산업단지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

김 청장은 “구도심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고부가 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신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등 ‘백년지계’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보편적 혜택을 누리면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생활밀착형 시설을 확충해 정책 사업의 효능감까지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덕남마을 가족 캠프장과 월산 근린공원 내 글램핑장, 빛고를 농촌테마공원 아영장을 건립해 도심 어디에서든지 15분 안에 접근이 가능토록 하고, 대촌동에 국제경기장 수준 축구장과 진월동 국민체육센터도 지어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복안을 내놨다.

이밖에 어려운 이웃의 생애를 책임지는 포용 복지 실현 차원에서 움직이는 행복 복지상담실과 사회적 가족망 이웃지기단을 운영하고, 7979센터와 7979봉사단을 구심점으로 마을단위 봉사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와 재난 예·경보 시스템, 지진 계측시스템 가동 등으로 생명 존중과 사람 중심의 ‘안전도시 남구’를 구축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며, 다가올 남북교류시대를 대비해 통일효도열차 운행과 평화통일 시민축제 등 주민 참여형 통일 공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2025년 남구가 개청 30주년 이 되는 이립(而立)의 해를 맞이하며 성장을 넘어 성숙한 도시로 발돋움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역량과 지혜를 결집해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남구가 완성될 수 있도록 오직 주민만을 위한 길을 걸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동구 “동(東)네라이프, 광주아트패스로 경험하세요”

2박 이상 숙박 최대 30% 할인 지원

광주 동구는 동구에 일정 기간 체류하며 ‘광주동구다움’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인 광주 동구 ‘동(東)네라이프’를 광주 스마트관광플랫폼인 ‘광주아트패스’에서 새롭게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동네라이프는 2박 이상 광주 동구에 숙박을 예약하고 머물 때 1박당 최대 30% (2만원 한도 내) 할인을 지원해 주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동네라이프 프로그램은 지난해까지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 운영됐지만 광주 관광플랫폼 일원화 및 활성화를 위해 이달

부터 ‘광주아트패스(www.artpass.kr)’에서 운영하게 됐다.

동네라이프 할인에 참여할 숙박업소는 지난해 동구와 관광활성화 MOU를 맺은 호텔아트하임, 라마다플라자 중창호텔, 무등파크호텔, 컬쳐호텔 램 등 동구 소재 관광호텔 및 산수 여로, 동명한옥 좋은 날, 컬쳐호텔 램, 장미옥, 유유한, 오아시타, 비즈니스호텔 듀 등 11곳이다.

동구는 동네라이프 프로그램의 광주아트패스 플랫폼 통합 기념으로 오는 31일까지 신규 회원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치킨 100마리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동네라이프 새단장 오픈을 기념해 광주아트패스 숙박 체험단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단에 선정된 여행객은 광주 동구의 숙소와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함께 즐기고 광주 동구 여행 알리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올해 광주 동구는 스마트관광플랫폼인 광주아트패스를 필두로 모든 관광 요소를 집약해 선보일 예정이다”며 “관광객들께서는 동구에 머물며 미식 관광, 골목 투어 등 오직 광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관광콘텐츠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서구, 24시간 ‘여성 안전지킴이’ 서비스 제공

여성 1인 가구·한부모 가족 대상

광주 서구는 여성 1인 가구 대상 주거침입·폭력 등의 여성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안전지킴이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전지킴이 지원사업은 여성의 안전을 책임지는 24시간 방범서비스로 CCTV(Full HD영상)와 비상벨,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CCTV와 모바일 앱이 연동돼 실시간으로 현관 앞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화재, 도난, 파손 발생 시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도 지원한다.

서구는 주거형태, 주변환경을 고려해 관내 여성 1인 가구 및 여성 한부모가족, 범죄피해 여성 140여명을 선정해 서비스



이 용 료 (월 9900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서구청양성아동복지과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이메일(evoka@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강미숙서구양성아동복지과장은 “호신·방범용품 추가 지원 등을 통한 여성 안전 지원을 확대하여 다 함께 만들고 누리는 여성친화도시서구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제2의 한강 찾자’... 북구, 문화도시 조성 나서

광주 북구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2025년 신규 역점사업 추진에 나선다.

20일 북구에 따르면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오는 7월 작품 공모를 통해 ‘제1회 무등문학상’ 운영을 추진한다.

참여 대상은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광주 지역작가로 직접 창작한 작품을 가지고 공모하면 분야별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선정된다.

수상자는 본상 1명(상금 1500만원)과 신인작가상 1명(상금 700만원)이다. 신인작가상의 경우 광주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적이 있고, 창작경력 10년 이내인 자로 대상이 제한된다.

시상식은 올 9월 중 북구민의 날 기념행

사와 연계해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북구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지역민들의 높아진 인문학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한강 작가 인문학 프로그램’, ‘도서관 속 생태놀이터’, ‘북구민 자서전 프로그램’ 등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강 작가 인문학 프로그램은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흰’ 등 한강 작가의 대표작을 중심으로 감상을 공유하고, 작가의 작품 세계에 공감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특히 ‘소년이 온다’의 배경지를 탐방하며 실감 나는 문학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서관 속 생태놀이터는 기후 위기의

시대 올바른 환경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생태교육과 인문학을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국립생태원과 협력해 중흥도서관에서 연중 추진된다.

또한, 북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글쓰기 교육과 전문가 집필 지원을 통해 본인의 삶을 긍정적으로 회고할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북구민 자서전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지난해 ‘한강의 기적’을 재현하고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북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광산구, 호수공원 주민 힐링 공간으로 재단장

특별교부세 등 17억5000만원 확보

광주 광산구는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쌍암근린공원과 수완호수공원 재단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해 하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쌍암근린공원에 12억 5000만원, 수완호수공원에 구비 5억원 등 총 17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광산구는 쌍암근린공원 내 피크닉 테이블 등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노후 산책로 포장 교체, 향기

수종 식재 등 견기 좋은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 화장실 및 어린이놀이 시설 등을 새로 설치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한다.

수완호수공원은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이용률이 높은 야외무대 및 관람석을 중점적으로 새로 단장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시민이 즐겨 찾고 만족할 수 있는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